



제네시스 '2022 IDEA 디자인상' 2관왕

제네시스 브랜드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관하는 '2022 IDEA 디자인상'에서 은상 1개를 포함해 총 2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네시스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G90과 디자인 정제성이 반영된 무선 충전기가 모빌리티·운송 부문에서 각각 은상과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 /제네시스



NH투자증권, 영양군 마을공동체에 냉장고 기부

NH투자증권이 강원도 영양군 마을공동체에 냉장고 30대를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부터 농협재단과 전국 농촌 마을공동체(마을회관, 경로당)를 대상으로 농촌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하 서광농협 조합장(왼쪽부터), 고명환 NH농협은행 강원영업 본부장, 김진하 영양군수, 김형신 NH투자증권 부사장, 김일수 강현농협 조합장, 최장영 NH농협 영양군지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DL건설, 지역 사회공헌 공로 '인천광역시장상'

DL건설이 지난 7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22 인천사회복지대회'에서 '인천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DL건설은 자원봉사 및 후원금품 지원 등을 통한 지역 내 활발한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김광덕 DL건설 상무(오른쪽)와 관계자가 '2022 인천사회복지대회' 시상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DL건설



LG헬로비전, 농촌경제 활성화 위해 제철장터 운영

케이블TV가 지역 농민들의 걱정을 덜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 LG헬로비전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과 온라인을 '제철장터'를 통해 지역별 대표 쌀을 판매하는 '팔도 쌀 한마당'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는 전남 함평과 충남 당진, 경북 안동 등 3개 지역의 품질 좋고 맛있는 대표 쌀들이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LG헬로비전

제주개발공사 제주삼다수와 함께한 일상 공모전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와 함께하는 나만의 일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제주삼다수를 음용하거나 제주삼다수 스토리, 온라인 견학 프로그램 참여 경험, 제주삼다수의 페트병 자원순환 캠페인 등 제주삼다수와 관련된 일상의 즐거운 경험을 사진이나 영상, 에세이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부산엑스포' 유치, 청년 아이디어 마중물 삼을 것”

대한상의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 최태원 “진심 다하면 현실 될 것”

2030엑스포 유치 아이디어를 위해 100인의 청년이 모였다. 해당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참석해 청년들에게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진심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평균 연령 21.8세의 Z세대 청년 서포터즈들 100명은 ▲경제계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홍보 아이디어를 내거나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른바 '손소문'을 내는 역할을 한다.

대한상의는 “2030 엑스포 유치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인 공감과 지지가 필수적이다”며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청년 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포터즈가 엑스포 유치의 첨병이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발대식을 통해 “행사를 100여 회 했지만 오늘 청중이 가장 파릇한것 같다. 좋다. 청년들의 활동이 엑스포의 마중물이 된다면 엑스포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며 “지금 청년들

이 경험하는 나라는 항상 선진국이였다. 하지만 세상을 리딩하는 나라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를 도약할 수 있는 행사가 2030년 부산 엑스포다. 청년들이 서포터즈를 열심히 해준다면 우리한테는 현실이 될 수 있다. 더 이야기 하면 끈대 소리 들을까봐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스포츠 현장에서 '부산엑스포' 힘 보탠다

KIA 타이거즈·전북 현대모터스 대형플래카드·엠블럼 패치 부착

현대차그룹이 그룹사 스포츠단과 공식 글로벌 SNS를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및 국내외 불조성을 위한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그룹 소속 스포츠단과 공식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30 부산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야구단 KIA 타이거즈와 축구단 전북 현대모터스와 함께 다양한 유치 활동을 벌인다.

먼저 KIA 타이거즈는 전날부터 홈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내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선수들도 이날부터 유

니폼 오른쪽 상단에 '월드 엑스포 2030 부산, 코리아(WORLDEXPO 2030BUSAN, KOREA)'라고 적힌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엠블럼 패치를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한다.

전북 현대모터스도 지난 7월 말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선수 유니폼에 부산세계박람회 엠블럼 패치를

삼성디스플레이, 멸종 위기종 '물장군' 살리기 나서

아산 반딧불이 서식지에 물장군 70마리 방사 행사

삼성디스플레이가 멸종위기종 물장군을 지킨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3일 충남 아산 반딧불이 서식지에 물장군 70마리를 방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 아산시청, 홀로세생태보전연구소와 협력했다.

물장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곤충이다. 개구리와 물고기 뿐 아니라 생태교란종 황소개구리까지 먹이로 삼아 습지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삼성디스플레이 등 관계자들이 물장군 방사 행사에 참여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최근 환경 오염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수 급감으로 멸종위기에 처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물장군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 아산시청, 홀로세생태

보전연구소 등과 '아산지역 멸종 위기종 살리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까지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하고 물장군 방사 활동 및 서식지 정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이다. /김재웅 기자 juk@

인사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장 서기관 지혜진

부음

▲김영호(전한국재보험협회 부장)씨 별세, 김정만씨 남편상, 김동현(한국산업은행 차장)·김동욱(바이트댄스 과장)씨 부친상, 손민정(한국산업은행 차장)씨 시부상 = 14일 오전 12시 14분, 부산시 수영구

중은강안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051-610-9009

▲이윤표씨 별세, 이충우·이현주·이원주씨 부친상, 노윤상·이현복(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대표)씨 장인상, 허채희씨 시부상 = 1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4호, 발인 16일 오전 7시 20분, 02-3010-2000

▲권춘자씨 별세, 김현정(부산 용호초 교사)·김진수(리퀴드매니아 대표)·김진구(통영 김진구이비인후과 원장)씨 모친상, 조선(부산일보 상임감사)씨 장모상 = 13일

오후 11시, 부산 메리놀병원 장례식장 특1실, 발인 16일 오전 9시, 장지 정관추모공원, 051-465-1024

▲김중학씨 별세, 김연태(국가경찰위원회 위원)씨 부친상 = 14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6일 오전 8시, 02-923-4442

▲이효직씨 별세, 이풍오(금강일보 전 편집부국장)씨 부친상 = 14일 낮 12시 30분, 대전 성심장례식장 2층 VIP 2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30분, 042-522-4494

이같은 최 회장의 익살스러운 멘트에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상의는 청년 서포터즈의 에너지를 마중물 삼아 3만명 수준의 글로벌 서포터즈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먼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엑스포 유치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연령, 직업, 국적을 불문하고 '엑스포 유치'에 진심이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단체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과 마주한 청년들은 엑스포 필승 전략으로 셉렘과 함께하는 댄스챌린지, MBTI별 부산 명소, 해외명소에 AR 포토부스 등 이른바 '인싸' 챌린지 아이템은 물론이고 해외 청년들과 글로벌 토론모임을 조성해 엑스포 아젠다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해가야 한다는 무게감 있는 아이디어까지 다양하게 쏟아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붙였다.

현대차그룹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공식 SNS 채널에도 부산의 경쟁력과 비전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국문과 영문으로 게재하며 글로벌 홍보에도 나섰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함으로써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칠성음료

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후원금

롯데칠성음료는 14일 '2022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롯데칠성음료의 후원금 전달은 코로나 19상황에서도 국제행사로 치러지는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원하는 마음과 엑스포 주최기관 중 하나인 충청북도와의 지역 네트워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준비했다.

엑스포조직위 관계자는 “환경보호 중심의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의 이번 후원으로 엑스포 성공개최에 한발 다가간 것 같다”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후원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어린이 유기농 주스 '오가니 크니쁘니와 친구들', 국내 최초 무라벨 생수인 '아이시스ECO' 등을 이번 엑스포에서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원성 기자